

C8006 인컴앤그로스FOFS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컴앤그로스FOFS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인컴앤그로스FOF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2832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중류형	최초설정일	2015.04.24
운용기간	2021.01.01 ~ 2021.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투자 목적은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 전환사채,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증가 달성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인컴앤그로스FOFS	자산 총액 (A)	1,759	1,795	2.06
	부채 총액 (B)	1	24	2395.08
	순자산총액 (C=A-B)	1,758	1,772	0.78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1,211	1,219	0.73
	기준가격 (E=C/D × 1000)	1,452.37	1,453.05	0.05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동 펀드의 피투자펀드는 2월 말 기준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주식(32.7%), 전환사채 (33.5%) 그리고 하이일드(33.8%) 등에 고루 분산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비교적 긍정적이며, 시장의 관심은 예상보다 나은 기업실적, 추가 재정부양책 가능성, 온전한 연준의 태도 및 백신 보급과 경제 회복 등에 지속적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인 위험자산의 성과는 분기중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펀드는 주식/우선채 전환사채 부분에서는 IT와 통신서비스 섹터가, 하이일드 부분에서는 유가 강세로 에너지 섹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분기 말들어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회복, 조기 긴축 및 인플레이 우려에 미국채 장기금리가 1.75% 밑까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수익률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성과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2021년 미국 경제는 상당히 온건한 연준, 추가 정부 지원책, 억눌렸던 수요 및 기업지출과 투자 증가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높은 한자리수에서 낮은 투자리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사채 부분은 이러한 주식 시장 강세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전환사채 발행이 2018/2019년 수준은 초과하나 2020년의 기록적인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일드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스프레드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호적인 시장환경으로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상승, 빠른 회복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정책적 변화 혹은 바이러스 관련 불리한 전개 등이 있습니다. 펀드는 벤치마크 수준의 편입비중 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운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인컴앤그로스FOFS	0.05	10.67	20.02	38.37

* 비교자수(벤치마크): (주)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인컴앤그로스FOFS	38.37	26.08	30.52	55.37

* 비교자수(벤치마크): (주)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0	0	91	124	0	0	0	0	0	-22	193
당기	0	0	0	69	-68	0	0	0	0	0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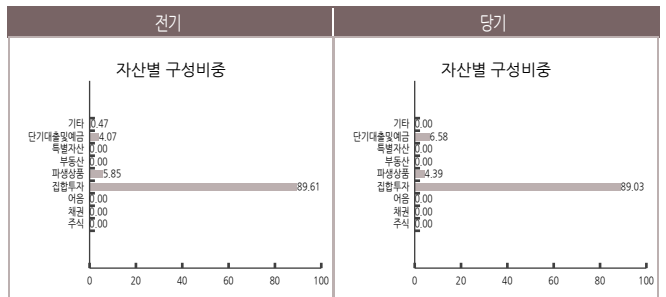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USD	0	0	0	1,599	0	0	0	0	0	47	0	1,646
(1131.80)	(0.00)	(0.00)	(0.00)	(89.03)	(0.00)	(0.00)	(0.00)	(0.00)	(0.00)	(2.63)	(0.00)	(91.66)
KRW	0	0	0	0	79	0	0	0	0	71	0	150
(1.00)	(0.00)	(0.00)	(0.00)	(4.39)	(0.00)	(0.00)	(0.00)	(0.00)	(0.00)	(3.95)	(0.00)	(8.34)
합계	0	0	0	1,599	79	0	0	0	0	118	0	1,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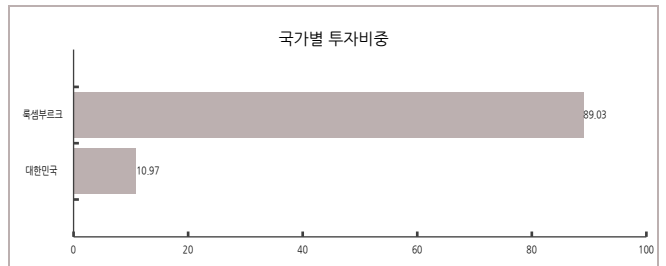
※ (): 구성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순위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룩셈부르크	89.03	6		
2	대한민국	10.97	7		
3			8		
4			9		
5			10		



▶ 한해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분 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함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함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1.03.31)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1.01.01 ~ 21.03.31)	환헤지로 인한 손익 (21.01.01 ~ 21.03.31)
100.0	99.0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통화선물

(단위: 계약, 백만원)

종목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미국달러F202104	매도	142	1,60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ALLIANZINCOME AND GRIT	89.03	6	파생상품	미국달러F202104	0.17
2	단기상품	증거금(NH선물)	4.22	7		
3	단기상품	CMA(신한금융투자(CMA))	3.43	8		
4	단기상품	USD Deposit(CITHR)	2.63	9		
5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0.52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ALLIANZINCOME AND GRIT	수익증권	1,534	1,599	룩셈부르크	USD	89.03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증거금	증거금(NH선물)	-	76	0.00	-	대한민국	KRW	
	CMA	신한금융투자	2021-03-31	62	0.40	2021-04-01	대한민국	KRW
	외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2021-03-23	47	0.00	-	대한민국	USD
	예금	우리은행	2015-04-24	9	0.23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2	81	2,597,437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9	81	2,597,437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8	81	2,597,437	-	-	2119000109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투자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	--------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2021.03.23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2	
판매회사	2	0.11	2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3	0.14	2	0.13	
기타비용	0	0.01	0	0.01	
매매 증거수수료	단순매매 증거수수료	1	0.03	1	0.03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1	0.03	1	0.03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증거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보증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 비용비율(A)	매매-증거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5952	0.1315	0.7267
당기	0.5933	0.1303	0.7236

※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 비율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증거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증거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증거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인컴앤그로스FOFS'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헤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